



The 40th Anniversary Bulletin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40주년 기념신문

발행처 :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사업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빌딩 10층 1010호 우:121-706
TEL 02) 714-1968 / FAX 02) 714-9084 발행인 : 최동섭 편집인 : 유형준

3호 2008년 5월
www.diabetes.or.kr



●●● 40주년 기념인터뷰 ③ 9~10대 회장 최영길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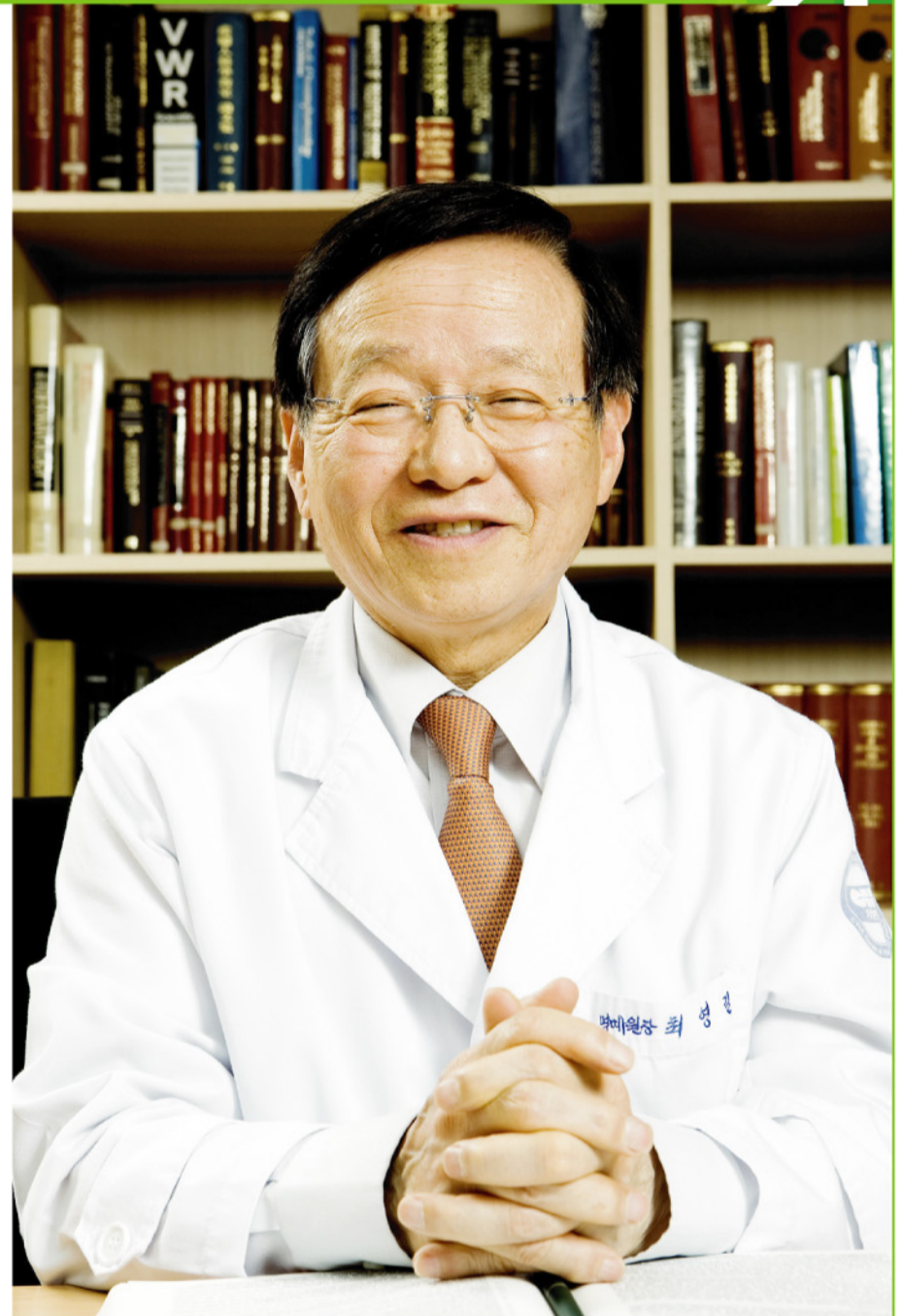
학회의 기능 체계화 무궁한 발전의 토대 만들다

"40주년 기념 원로교수 인터뷰"는 학회 역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원로회원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 그 세 번째 인물은 1983년~1987년 제 9대, 10대 회장직을 역임한 최영길 선생이다. 최영길 선생은 경희의대를 퇴임한 후 현재 강남차병원에 재직하고 있다.

인터뷰는 4월 11일(금) 오후 6시 강남차병원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진행은 유형준 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장이 맡았다. <편집자>

목소리가 참으로 카랑카랑하다. 나이와 관계없는 젊음과 패기가 느껴지는 음색이다. 얼굴에 흐르는 온화한 미소는 인터뷰 장소의 기운마저 따뜻하게 바꾸었다. 최영길 선생을 따라 2~30년 전 당뇨병학회 초창기 시절로 함께 가보았다.

최영길 (이하 최) : 당뇨병학회 초창기에는 인력, 학문적 업적, 집중도 모든 면에서 지금과 비교가 안되었지요. 40년 동안 참으로 엄청난 질적 양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면으로 이어짐>



40주년 신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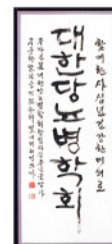
9~10대 회장
최영길 선생
인/터/뷰



역사의 현장
제1회 한일당뇨병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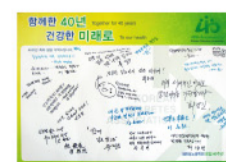


40주년 기념사업단
경/과/보/고



40주년 기념우표
기부금모금현황

40주년 기념사업단
기념촬영



40주년 기념
축하메세지

학회의 기능 체계화 무궁한 발전의 토대 만들다

<1면에서 이어짐>

유형준 (이하 유) : 선생님께서 회장직을 맡으시던 기간 동안 당뇨병 학회 학문적 업적의 토대가 많이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1985년 제1회 춘계학술대회가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최 : 당시는 조직적인 힘이 참으로 미미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현재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을 보면 그때 기반을 만들기 잘했다 싶지요.



유 : 같은 해인 1985년 준회원제를 두어 회원의 2원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최 : 임상, 기초 연구가 같이 병행되어야 당뇨병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상과 기초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당뇨병학 발전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준회원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유 : 1986년에 신설된 설원연구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 설원연구비는 김응진 명예회장님이 출연하셔서 젊은 후학들의 연구를 격려하고 촉진하는 의미에서 제정되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당뇨병학의 기초를 다지고 학회 결성이라는 큰 일을 하신 어른께서 만드신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지요.

유 : 학회가 차츰 조직을 키워나가 1987년에는 식품영양위원회, 약제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최 : 당뇨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학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당뇨병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잘 해결해나가야만 하잖아요.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지요.

유 : 지금은 열리지 않지만 선생님 회장 재임시절인 1987년 한불당뇨병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최 : 그랬지요. 두 번에 걸쳐 참 아쉽습니다. IDF 회장이었던 Lefebvre 교수와 의기투합해 개최했었어요. 요즘도 Lefebvre 교수와 만나면 참 좋은 대화였는데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다 우리 학회가 국제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겠지요.

덧붙여 한일당뇨병학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면, 처음 조직할 때 일본 측에서 굉장히 성의 있게 일한 몇 분이 계셨어요. 고베 대학의 Baba 교수, 나고야 대학의 Sakamoto 교수, 우베 야마구찌 대학의 Kaneko 교수가 그들이죠, 특히 IDF 부회장, 일본 당뇨병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Kaneko 교수와는 개인적인 우정도 매년 쌓았답니다.

한일당뇨병학회는 일본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이 거의 참석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다른 단체의 한일학회들도 여럿 있지만 한일당뇨병학회가 대규모 정식 한일학회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유 : 선생님께서 회장 재임하신 4년 동안 하신 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이제 학회 40년 전반을 통해 보람 있었던 일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최 : 번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회장을 했던 학회 초창기, 일본에서 7~80명의 학자들이 서울에 온다고 했을 때 국제적 수준에 맞출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 당시 신라호텔을 학회 장소로 자주 이용했는데 프로젝터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스크린이 광목으로 내려오고 그랬어요. 신라호텔 지배인이 그래요. 당뇨병학회 덕에 자기네가 많이 세련되어졌다고. 비학술적인 면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당뇨병 학회가 많이 공헌한 셈이지요. 허허.

유 : 몇 해전 피지의 한 교민 가정에서 선생님이 지으신 당뇨병 책자를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사회 공헌이라는 화두도 놓치지 않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학회의 사회 공헌에 대해 한 말씀해주세요.

최 : 사실 학회가 학술적인 일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소견입니다. 당뇨병환자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학문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환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맞춰야 합니다. 예방과 교육이 참 중요한데 정부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런 것을 대신하고 또 경각심을 주어 정부를 리드하는 것도 학회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 : 선생님 개인에 관한 질문을 감히 하나 올리겠습니다. 당뇨병학에 분자생물학 개념을 듬뿍 집어넣어 주신 대표적인 학자이신데요. 당뇨병학 한길로만 걸어오신 비결이 있으시다면요.

최 : 너무 과한 말씀이십니다. 다만 모든 질환이 분자생물학적 이해를 가져야 그 병태 생리를 이해하고 진단과 치료에 일가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뇨병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합니다. 인터넷도 자주 들어가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유 : 마지막으로 당뇨병에 발을 들여놓는 후학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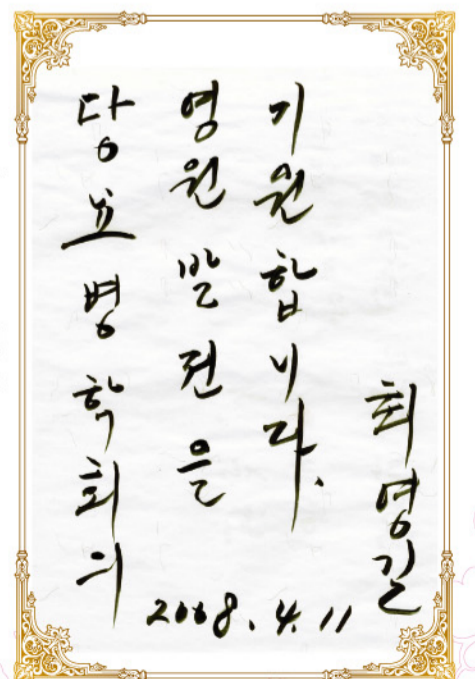
최 : 미국의 한 시골 의과대학에서 내분비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Plenary Lecture를 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진 일화를 소개할게요. 자동차 사고로 응급실에 환자들이 가득 찼는데 딱 한 사람만 뼈가 안 부러졌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돌려 보냈을 텐데 그 의사는 환자의 골밀도(BMD)가 무지하게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환자의 가족력을 조사해 가족 전체의 BMD가 높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 Family tree로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하여 우수한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 받았어요. 요점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 : 분망하신 중에도 소중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덟분의 원로 교수님 가운데 제일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준 최영길 선생은 인터뷰가 끝난 후 한가지 빠트린 게 있다고 했다.

최 : 내가 경희대학교 있을 때인 1983년에 서실장이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가. 그때부터 함께 했으니 학회 역사의 산증인이죠. 그땐 처녀였는데 이제 중년이 됐네.

한동안 서영애 실장과 25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최영길 선생의 모습이 참으로 인자하다.



최영길 9~10대 회장의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 휘호

40주년 기념사업단 경과보고

기념사업단 회의

40주년 기념사업단은 4월 29일(화) 7차 회의를, 5월 19일(월) 8차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40년사 세부목차 확정, 기념 좌담회, 세계석학 초청 심포지엄, 기념우표 발송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5월 10일(토)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회의를 가진 후 사업단 기념촬영을 하였다. (관련사진 4면)

40년사 통사 전문집필진에게 맡기기로

40년사의 통사(通史) 부분을 전문 사사작가(황보승남, 전국중소병원 협의회 인터넷 중소병원)와 함께 집필하기로 하였다. 첫 만남을 5월 14일(수) 가졌고, 5월 19일(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5월 19일(월) 현재, 9개 위원회(교육, 학술, 연구, 수련, 홍보, 간행, 캠프소, 진단소, 역학소)와 3개 지회(충청, 호남, 경인)에서 40년사 원고가 들어왔다.

40주년 기념 좌담회 "함께한 40년, 다가올 40년"

원로회원과 신세대 회원이 함께 당뇨병학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는 기념좌담회 "함께한 40년, 다가올 40년"이 6월 3일(화) 오후 6시 학회 회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기념좌담회에는 역대 회장, 이사장단과 전임의가 참석하며 진행은 고정수 총무이사가 맡는다. 좌담회 내용은 40년사에 게재된다.

춘계학술대회 학회부스 40주년 이미지로

제21차 춘계학술대회 학회부스를 '40주년'을 주제로 디자인했다. 40주년 엠블렘과 슬로건, 학회 연혁, 40주년 기념사업단 활동소개 등이 부스 안에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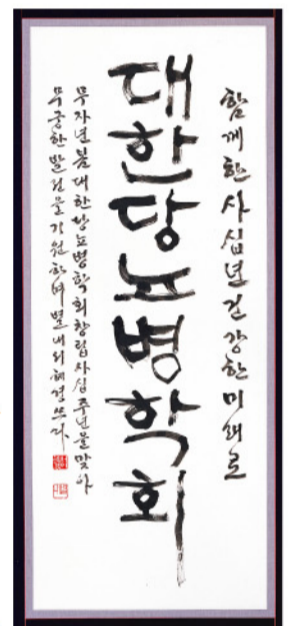


〈제21차 춘계학술대회 학회 부스 전경〉

기념우표 기부금 112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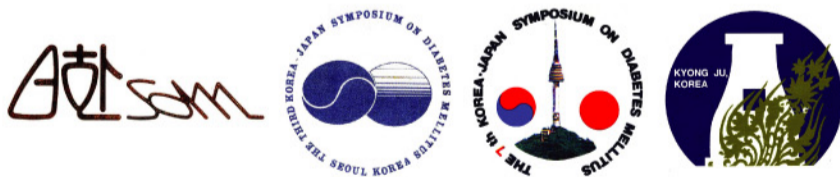
40주년 기념우표를 4월말 전 회원에게 우편발송하고 회원에게 '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기금' 기부금을 받았다. 춘계학술대회 학회부스에서는 현장 기부금모금을 진행했다. 5월 16일(금) 현재 112명 참여, 총 5,200,000원이 모였다. (기부금명단 4면)

서예가 별내 서혜경 화백(신순현 교수 부인)이 당뇨병학회 40주년을 축하하는 54x134 사이즈의 작품(오른쪽)을 만들어 주었다.



역사의 현장 - 제1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 (1981년 10월 31일)

학회 질적 도약의 큰 계기, 세계진출의 항로 열다



〈좌측부터 2차, 3차, 7차, 9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 엠블렘〉

1980년 7월 16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3차 일본당뇨병학회 총회. Vacor 연구를 발표한 이태희 교수를 비롯하여 김응진, 윤준식 교수가 참석했다. 때마침 나고야 약대 장길남 선생의 주선으로 세 교수는 총회 뒤 열린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을 합의할 수 있었다. 일본 측에는 Baba, Sakamoto, Horiuchi와 Mimura 교수가 있었다.

양국은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을, 1981년 가을부터 심포지엄 형식으로 실시하고 제1회는 한국이 주최하며 연자 수는 양국에서 4~5명씩 동일하게 하며 매 2년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 대표로 김응진, 민현기, 고광욱, 최영길, 이태희 교수가 선정되었다.

드디어 1981년 10월 31일 제1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이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되었다. 회장에 민현기, 부회장에 고광욱과 일본의 Baba, 총무에는 이흥규가 선임되었다.

민현기 회장의 "한국인 당뇨병 이환률의 변천양상"에 관한 연제를 서두로 하여 일본 Mimura 교수의 "전현성 소아당뇨병의 임상 및 유전 연구"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당뇨병 발병의 자가면역 기전, 인공췌장을 이용한 당뇨병치료, 당뇨병 치료 경과에 따른 지질대사이상, 당뇨병 신장합병증, 망막합병증, 심장합병증, 신경합병증에 관한 발표, 끝으로 당뇨병 환자 교육에 관한 연제 발표로 막을 내렸다. 한국에서 12개, 일본에서 15개의 연제가 발표되었고 총 150명(한국 114명, 일본 36명)이 참석하였다.

1983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될 제2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제1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의 막이 내렸다.

내년이면 15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이 열린다. 한번의 쉽다 없이 꾸준히 발전의 길을 달려왔다. 실로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의 개최는 당뇨병학회 역사의 큰 획이 아닐 수 없다.

〈참고 : 당뇨병학회 20년사〉



기부금 모금 참여 명단(1차)

"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우표-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기금 조성" 기부금 모금에 동참하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더욱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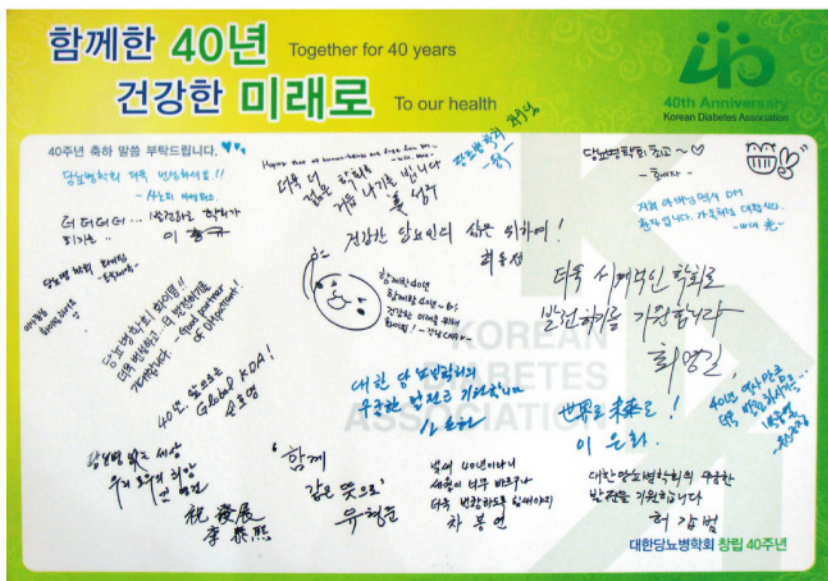
아래는 1차 참여명단입니다. 총 112명, 5,200,000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5월 16일 이후 기부해주신 회원은 추후 학회 홈페이지 2차 명단과 기념신문 6월호에서 공지하겠습니다.

- ❁ 기부금 모금에 참여하시려면 **국민은행 392801-04-067336** (예금주: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으로 입금해주세요.
-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회원은 기념사업단(02-714-1968)으로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양식대로 메일(kda40th@diabetes.or.kr)을 보내주세요.
- ❁ 우표 추가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기념사업단으로 전화주세요.

❁ 명 단(가나다순)

강경구(낙천병원)	김순구	박상호(양산연합의원)	안동석(안내과의원)	전속(경희대)
강양교	김여주	박석원(분당차병원)	유철재(유철재내과)	정우진
강재황(강내과)	김영건(충남의대)	박선영(서울위생병원)	윤건호	정준용
고경수(상계백병원)	김영선(김&윤내과)	박성배	윤광선	정지영
고종학(서울의원)	김영일(울산의대)	박세영	윤상호(제일내과)	정춘희
국돈표(국내과)	김영준(연세내과)	박영주(서울의대)	윤종길(윤종길내과)	조진형(평화의원)
권계형(권내과)	김용주	박현강	윤호상(윤내과의원)	조현대
권석윤(사노피아벤티스)	김용태(김용태내과의원)	방명희	이규춘(서울내과의원)	진홍용
권수경(동래백병원)	김윤숙(경상대)	백영직(백내과의원)	이문규	채수인
김군순(대전성모병원)	김인원(세진내과)	백종렬	이병두	최광웅
김기선	김종덕	서교일	이병완(한림의대)	최동석
김대중(아주대)	김지민	서지영(곽병원)	이상준(푸른미래내과)	최동섭(고려의대)
김동규	김진관	손승현	이숙경	최신영(최신영내과의원)
김동빈	김진수	손승환(손승환내과)	이영수	하근수
김동윤	김철우(김철우내과)	손태서	이은숙	하헌주
김동찬(중앙내과)	김철희	손현식(가톨릭의대)	이정림(서울아산병원)	한마음내과
김동희	김현진(관동의대)	송광선(송광선내과)	이태호	한재호(한재호내과)
김동희(상계백병원)	김홍범	송민경(평촌연세내과)	이태희(광주의원)	한제호
김미경	나민아	송민주(전북의대)	이형우(영남의대)	현주숙(충남의대)
김민선	남광우	송준현	이희수(명동약국)	형근영(형근영내과)
김병상(시지미래내과)	노은숙	신순현	임현숙	
김상욱	류동열(이화여대)	신옥식	장이선(대전성모병원)	
김선두	박근석	신용민	장학철(분당서울대병원)	

당뇨병학회 40주년 축하메시지
40주년 기념사업단 얼굴들



<지난 5월 8일(목)~10일(토) 춘계학술대회 학회부스에 설치했던 "당뇨병학회 40주년 축하메시지" 메모판에 학회 회원들이 쓴 글귀 모습>



40주년 기념사업단과 학회 사무국 직원이 5월 10일(토) 춘계학술대회 학회부스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아랫줄 왼쪽부터 이창범 위원, 유형준 실무추진위원장, 최동섭 기념사업단장, 최경묵 위원, 고경수 간사. 윗줄 왼쪽부터 구라희 대리, 유지인 과장, 서영애 실장, 이정은 40주년 기념사업단 직원, 김보라 사원, 최성희 위원, 조영민 위원, 임지연 사원, 고승현 위원, 강준구 간사보.